

그 시절 바다, 추억 속에만 남을까

소리를 따라 - 서귀포 대포동 김 절 할머니 2

등록 : 2010년 08월 25일 (수) 10:13:42
최종수정 : 2010년 08월 25일 (수) 10:13:42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몇 번이고 목숨 구하고 거뒀던 삶 의지했던 바다 이제는 떠날 준비중
해군기지 건설 영향 대포마을도 흔들...보상 앞서 '가치' 알아주기를

인생 중반을 넘긴 세 모녀의 대화는 좀처럼 끝을 보이지 않는다. 훨씬 앞을 살고 있는 어머니도, 잔걸음으로 그 뒤를 따르는 두 딸도 바다 이야기만 꺼내면 한치의 양보도 없다. 보태고, 거들고, 확인하는 동안 방 안은 어느새 바다로 변한다. 언제나 그녀들을 감싸 안아주던 그 곳이다.

어떻게든 바닷에 갔주마는...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며 눈도 안 맞춰주던 김 절 할머니(90)의 이야기는 시대를 몇 번이나 오르락내리락 거린다.

두 번이나 사람을 구했던 이야기에는 두 딸(임춘희·60, 임영자·57) 역시 귀를 종긏한다.

"물질하디 멀리 사람이 어른거려, 뭐 햄신이 살피 보난 벌써 물을 잔뜩 먹었 가라앉는 거라, 뭐 생각 할거도 어시 그냥 확 낚아챈 물 밖으로 내쳤주"

"어떻 어머니 겁도 안나셨수과"

"그런 거 생각해서문 사람 못 구하지 그냥 물 밖으로 나가야한다는 거 말양은 생각도 안해서"

잠녀회장을 맡았을 정도로 물질에 이력이 난 큰 딸 임춘희씨 역시 몇 번이고 물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을 거두는 일을 했다.

"바다에 살면서 그 정도는 일도 아니지"하는 씩씩한 표정에는 그 아픔이며 충격이 고스란하다.

"예전에는 작업을 하다 어느 순간 사람을 놓치면 죽었구나 했지만 지금은 멀쩡히 작업을 하고 물에 나온 뒤 갑자기 가는 통에..."

그래도 바다에 간다. 그게 삶이기 때문이다. 김 할머니의 시선이 딸에게 향한다. 말은 없다. '네 맘 다 안다'하는 눈빛이 다독다독 어깨를 감싼다.

그렇게 바다가 사람을 내치면서 가혹이나 무거워지던 할머니의 발은 바다를 떠났다. 지팡이에 의지해 서라도 바다로 갔던 할머니는 이제 몸만 움직이면 닿는 바다로 눈도 주지 않는다.

"이제라도 바닷에 가면 물건을 하영 할 거 같은디...", 그래도 이젠 바닷에 안가"
"이젠 어머니까지 안 거들어도 돼 마썸" 두 딸의 말이 할머니에겐 위안이 되는 것 같았다.



해녀탈의실

이젠 갈 바다가 없어

잔뜩 흥이 가득하던 대화 끝이 조금씩 흐려진다. 얼굴에도 먹구름이 가득하다. 말끝마다 '어머니만큼은 아니어도'하면서도 슬쩍 '삼군'인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던 딸들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나 할지"

임춘희씨가 말을 꺼낸다. 해군기지의 길고도 깊은 생채기는 인근 대포마을을 놓치지 않았다. 임씨는 "처음에는 여기 잠녀들도 바다만은 안 된다고 했지만 돌아가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고 했다. 해군기지 건립 논의의 중심인 강정이며 바로 인근 법환까지 반대 목소리를 낼 때 대포만큼은 제대로 힘을 보태지 못했다.

영향을 덜 받는 지역으로 분류 되는데다 어느 샌가 마을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다. "무슨 조사를 나온다고 해서 몇날 며칠을 기다린 데다, 정작 작업을 마친 삼군들이 바다에서 나오기도 전에 조사가 끝났다고 가버렸다"며 "잠녀들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사정도 모르면서 보상 얘기만 하더라"고 분한 마음을 끄집어냈다.

두 차례 조정 끝에 잠녀 한 사람당 100만원 남짓한 보상금이 나왔다고 했다. 임씨는 "당장 바다가 없어진다는데 그까짓 게 대수냐"며 "그 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라고 포기했다"고 말했다.

몇 푼에 바다를 내놓고 나면 앞으로 어찌할까. 세 모녀의 이야기는 '앞으로'를 향한다. 해군기지며 돌아가는 상황이 낯선 김 할머니는 바다가 없어지는 일만으로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두 딸은 반평생 가까이 의지했던 존재에 대한 상실감을 토로한다. 그 때문에 잠녀들 사이에 묘한 이상기류가 흐르는 것도 맘이 아프다.

"누구 탓을 하겠느냐는 제대로 조사도 해주고, 얘기도 들어줬으면 이만큼 힘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힌다.

김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임씨들도 수년이 흐른 뒤 "말하려면 눈물이 나서..." 할 것이다. 바다와 관련한 사업을 할 때마다 보상을 거론하며 반대만 하는 시끄러운 존재들로 여겨졌다는데 대한 자괴감도 쉽게 사라지지 않으리라.

바다는 말이 없다. 하지만 바다 사람들은 말을 한다. 수 십년 바다 속을 뒤집었던 사람들만큼 그 안을 알 사람들은 없다. 그 사람들의 흔적을 지우고 바다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보상으로 덮기에 이들이 안은 상처가 이리도 큰 데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특별취재반 = 김대생 교육체육부장·고 미 문화부장·해녀박물관>